사회적 죄인들의 깜짝 대박

(마태복음 9:9~13)

9. 예수께서 그 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10.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11.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12.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13.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사회적 죄인들의 깜짝 대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사회적 죄인들의 깜짝 대박'
'대박'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일이 크게 이루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대박이 난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문제는 이 죄인이 어떠한 죄인이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란 사회적 죄인을 의미합니다. 의인 또한 사회적인 의인을 말합니다. 아쉽게도 사회적인 의인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사회적 의로움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죄인이나 사회적 의인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상식에 비추어 볼 때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죄인이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 하마르톨로스(ἁμαρτωλός)입니다. 하마르톨로스는 과녁에서 빗나가다를 의미하는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의 명사형인 "과녁에서 빗나간 사람" 혹은 "기준 바깥으로 나간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염두에 두자면 죄인은 과녁과 기준이 무엇이냐에 달려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써의 의인 또한 단순히 "옳고 정당한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의인은 "과녁을 맞힌 사람"이며 "기준 안에 머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

니다. 오늘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죄인과 의인이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과녁을 맞히거나 못 맞혔다는 것은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녁은 목표로 하는 대상입니다. 과녁을 적중시키면 그에 상응하는 기쁨과 만족이 주어지기 마련입니다.
양궁 경기에서 과녁 정중앙에 카메라가 도입되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중앙 카메라를 통해 날아오는 화살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관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카메라를 설치할 때에는 설마 정중앙을 맞추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국의 여성 양궁 대표팀이 정중앙을 맞춰서 카메라를 깨뜨렸습니다. 카메라가 깨지는 그 순간의 통쾌함이 잊히지 않습니다. 바라보던 제가 통쾌했을 정도이니 직접 활을 쏜 당사자의 통쾌함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과녁을 적중시킬 때에는 항상 기쁨과 만족이 따라옵니다. 그 과녁을 많은 사람이 목표로 하는 어려운 위치일수록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성취감이 동반될 것입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에는 과녁이 존재합니다. 구기 종목에서는 골대가 그 역할을 하고 시간을 재는 종목에서는 기록이 과녁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녁은 비단 스포츠 경기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수능시험이 끝났습니다. 이제 수험생들은 원하는 대학에 지망하고 합격을 바라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서울대학에 지원해서 합격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서울대학은 대학이라는 과녁의 정중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합격했을 때의 기쁨과 만족 또한 대단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공무원 시험이 과녁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굴지의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과녁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짝사랑하던 사람과 정식으로 연애를 하게 된 사람이 있다면 과녁에 적중한 셈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모두 과녁에 적중하는 것이고 과녁에 적중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과녁에 적중하지 못하면 허무함과 안타까움과 슬픔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51절 등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는 구원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 허무함과 안타까움은 목표로 하던 과녁에서 빗나간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면 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과녁에서 적중하는 자와 벗어난 자를 굳이 의인과 죄인으로써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그 과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과녁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하마르티아 즉 죄의 본래 의미는 영적인 과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입니다. 반대로 의인은 하나님을 과녁삼아 마음이 꽂힌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과녁으로부터 벗어났기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법적인 과녁이 있습니다. 법을 기준으로 삼아 행동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실정법상 범죄란 법이라는 과녁을 벗어나 행동하는 상태를 일컫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동이라는 활을 쐈을 때에 그것이 법이라는 과녁에서 벗어났다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인 과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이 정한 가치가 과녁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사회적 과녁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돈이 있는 자는 사회적 의인의 위치에서 살아가고 돈이 없는 자는 상대적으로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단 돈뿐만이 아닙니다. 외모지상주의가 가속화되면서 예쁘면 무죄이고 못 생겼으면 유죄라고 여겨지며 차별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집안이 좋으면 무죄이고 집안이 별 볼일 없으면 유죄인 경우도 있고, 학력이 좋으면 무죄 학력이 보잘 것 없다면 유죄로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회적 경향을 비판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만 실제로 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또한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데 국산 소형차를 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가의 외제차로 데려다줍니다. 소형차를 가진 부모는 차에서 내리는 아이에게 어쩐지 미안한 느낌이 듭니다. 이러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돈이라는 사회적인 과녁에 대해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과녁을 기준으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구세주로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부르시는 대상이 따로 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부르시는 대상이 죄인입니다. 오히려 의인이라 여겨지는 사람들은 부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 예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신다는 것일까요?
그동안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영적인 과녁만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과녁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세상에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애초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면 굳이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강조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다소 모순돼 보입니다. 그렇기에 그동안 이 말씀을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의인으로 착각하는 바리새인에 대해 풍자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라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재해석해보자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의인이라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부르러 왔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너는 죄인이면서도 의인이라 착각하지만 이들은 스스로를 죄인이라 인정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신 셈입니다.

한편 사회적 과녁을 기준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살펴본다면 사뭇 다른 상황이 전개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마태는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죄인으로 여겼던 계층에 속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사회적 죄인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은 세리나 이방인들과 창기들과 창기들의 포주들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의 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세리 동료들이 함께 있었을 수도 있고 이방인인 로마 사람을 초대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리는 세금을 거둬 로마 관리에 바치는 가운데 착복을 일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점은 이들이 비판받는 계층이었음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를 영적인 죄인으로 여기며 살지는 않았으리라는 것입니다. 본래 이러한 일에 종사하였다는 것부터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떨어져 있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를 비롯한 일부는 스스로를 죄인이라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굳이 말하자면 바리새인보다 더 지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먼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12절에서 “기록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영적인 과녁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것입니다. 이처럼 모두가 죄인이기에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굳이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신 이유는 바로 사회적 과녁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현장에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사회적 기준대로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기 위해 이들의 기준을 그대로 이용하시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을 비롯한 당시 유대사회에서의 사회적 기준은 어떠했을까요?
빌립보서 3장 5~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써 가졌던 사회적 신분에 대해 언급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됨을 언급한 것이고 율법을 잘 지켰음을 강조함으로써 영적인 과녁에 부합한

자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기준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일반적인 바리새인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겼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인간들에 대한 사회적 관계로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 사람들 눈에 잘 보이기 위한 위선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과녁에 적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과녁을 적중시키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인정과 존경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인으로써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경우는 스스로를 사회적 의인으로 여겼기에 그들과 다른 삶을 사는 이들을 죄인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이방인이나 세리나 창기와 같은 죄인들은 물론이고 그와 관련된 가족이나 사람들과는 인사도 하지 않았고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타인을 죄인으로 여기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정해놓은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과 어울리려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죄인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상대적 의인으로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회적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사회적 기준에 대해 알고 있었고 납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재벌 3세들만의 모임이 있다고 해봅시다. 재벌은 자기 힘으로 이루었든 부모를 잘 만났든 사회적인 과녁을 적중시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가진 돈은 어느 사회에서나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는 대표적 가치입니다. 또한 과녁에도 위치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벌들은 돈이라는 과녁의 정중앙에 화살을 맞힌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에서는 재벌이 의인이고 그 이하는 상대적으로 죄인이 됩니다. 달동네에 사는 가난한 자들이 결코 섞일 수가 없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들과 식사도 하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지 않는데 자녀들을 결혼시킨다는 등의 일은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야생 짐승이 우글거리는 광야에 자녀를 내던지는 것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사회에서도 어렵잖게 발견됩니다. 드라마를 보면 달동네에 사는 아가씨가 재벌 가문의 아들과 만나 사랑에 빠지는 구도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재벌 가문에서는 그 결혼을 막기 위해 온 집안이 나서서 방해를 합니다. 돈이라는 과녁의 정중앙에 선 재벌의 입장에서는 평범한 샐러리맨 집안의 딸과 결혼을 한다고 해도 죄인과 결혼하는 것으로 느낄 정도인데, 하물며 달동네에 사는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는 것은 야생 짐승들 틈에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멘사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IQ검사를 해서 2%안에 드는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천재들의 모임입니다. 멘사에는 IQ가 100정도 되는 보통 사람은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멘사의 회원들이 자신들을 의인으로 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지능이라는 관점에서 의인과 죄인을 가르자면 멘사의 회원들은 상대적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리나 창기들과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하며 어울리지 않았던 것도 근본적으로는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적 과녁을 기준으로 삼아 의인과 죄인은 나누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 내에서도 엄연히 사회적 계층이 나누어져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남의 유명한 미장원은 외모와 돈이라는 과녁을 적중시킨 자들이 의인으로써 모이는 자리입니다. 외모가 부족하고 돈이 없는 사람이 입장한다고 해서 경찰이 잡아가지는 않겠지만 결코 그곳의 분위기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암암리에 사회적인 의인과 죄인의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이러한 구분은 엄청난 혁명적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왔던 의인과 죄인의 의미를 뒤집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과녁을 적중시키지 못한 계층에 있다고 해서 스스로를 영적으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굳이 명시적으로 사회적 죄인들만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화살과 같습니다. 화살이 과녁을 향해서 날아가듯이 마음은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을 향하게 됩니다. 또 마음을 쓰는 것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물이 흐르듯이 지속성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과녁 삼고 하나님이라는 과녁에 적중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라는 가치를 과녁으로 삼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을 돈이라는 과녁에 적중시키고 흐르게 함으로써 기쁨과 만족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적 죄인이 됩니다. 돈 뿐만이 아닙니다. 학력이나 인맥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모든 가치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실패자이자 패배자이고 낙오자인 이들에게 일어나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있습니다. 사회적 과녁으로부터 빗나감으로 인해서 마음의 자유로움을 얻게 됩니다. 원해서 얻은 자유가 아닙니다. 사회적 과녁으로부터 빗나가고 벗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이 억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회적 과녁에 마음을 적중시킨 사람들이 그 과녁으로부터 마음을 빼내어 하나님이라는 과녁을 향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회적 과녁을 적중시킨 자들을 구원에서 제외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 또한 구원받기를 바

라셨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화살이 하나님이라는 영적 과녁에 적중해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이미 사회적 과녁에 마음을 적중시켜서 통쾌한 기쁨과 만족을 맛본 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실패하고 낙오하고 경쟁에서 패배한 사회적 죄인들은 기쁨과 만족에 굶주려 있기에 예수님의 부름에 금세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사회적 기준이라는 과녁으로부터 빗나가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사회적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과 부자 청년의 일화를 연결시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청년은 구원을 얻고자 하는 기특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돈이라는 과녁으로부터 마음을 빼낼 것을 제안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과녁에 적중하게 될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돈을 포기할 수 없었고 그로인해 걱정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곧 세상에서 돈이라는 과녁에 마음을 적중시킨 사회적 의인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석학들은 학식이라는 과녁에 마음을 적중시킨 사회적 의인입니다. 정치인들은 권력이라는 과녁에 마음을 적중시킨 사회적 의인입니다. 이들은 사회적 과녁에 마음을 적중시켜서 이미 기쁨과 만족을 얻었기에 예수님이 제시하신 과녁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일부러 배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기에 스스로 배제 당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기에 사도 바울과 같은 거듭남의 예는 존재합니다. 앞서 빌립보서 3장 5~6절에서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써 사회적 의인이었던 자신의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로부터 이어지는 7~8절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의 마음에서 과녁이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기쁨과 만족을 준다고 믿어지는 과녁을 향해 마음의 화살을 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써 사회적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배설물은 말 그대로 빨리 빼내야 하는 대상입니다. 몸 안에 두었다가는 변비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동안 돈에 마음을 주었고 그 결과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10년짜리 변비에 걸린 셈입니다. 사회적 과녁에 마음을 주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긴 일들에 마음을 주고 있으니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을 과녁으로 제시하셔도 마음을 보내지 못합니다. 그 일이 너무나 어렵기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오늘 말씀과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사회적 과녁으로부터 벗어나고 빗나간 사회적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사회적으로 실패자이고 낙오자이고 패배자였던 나사로였기에 하나님께 마음의 화살을 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사로가 구원받는 믿음의 이유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과녁으로 제시하시기 위해 십자가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진리가 담겨있는 마태복음은 정말 굉장한 책입니다. 저는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마음의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낙오자고 실패자라고 여긴다면 사회적으로는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가치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도 못 벌고 배운 것도 없고 지위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오히려 여러분은 대박 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 같은 사회적 죄인들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사회적 의인들을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사회적 의인이었다면 결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과녁 삼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생활화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사회적 의인으로 만들려는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입니다. 인간 사회가 정해놓은 가치의 과녁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역사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사로와 같은 사회적 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가 정해놓은 가치의 과녁에서 빗나간 자가 되고자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사회적 과녁에서 빗나간 자만이 영적인 과녁을 맞힐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자부심을 가질만한 일이 하나 쯤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일은 못하지만 이거 하나는 잘 한다는 자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되었든 외모가 되었든 이거 하나는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어떻게든 사회적 의인이 되고자 안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이러한 마음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눈곱만큼이라도 사회적 과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을 과녁 삼을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에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마음을 다할 때에야 사랑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과녁 삼는 화살이 될 수 있게 해주는 일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마음을 적중시켰을 때에 느끼는 통쾌함과 기쁨과 만족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새롭게 된다는 말의 원문을 보면 유쾌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기쁨과 만족을 누릴 때에 이제부터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일과 사건에 대해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적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과녁 삼아 하늘로 갈 때에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화살이 되어서 적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인간 세상에서 좋다고 여기는 가치의 과녁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마음에서 빼내야만 합니다. 그 과녁들을 향한 마음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마음을 드려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까지 흐름이 이어질 때에 기어코 하나님께 적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사회적 죄인으로 만들어 주는 사건이며, 예수님께서는 그 사회적 죄인을 부르러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봄을 지속함으로써 인간 사회가 정해놓은 모든 과녁으로부터 빗나간 사회적 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부름에 초대받아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에까지 따라 올라가는 흐름을 이루는 화살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적중하여서 하늘의 통쾌함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의 화살이 적중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